

민주 차기 원내대표 뜨거운 관심... 후보군만 44명

'175석 제1당' 국회 운영 전반에 막대한 힘... 다음달 의총서 선출 김민석·김병기·박찬대 거론... 강훈식·박주민, 여야 협상 경험 풍부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경선이 그 어느 때 보다 뜨거운 전망이다.

제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만큼 국회 제1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 전반에 막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 누가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가 될지 더욱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헌에는 원내대표를 매년 5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다음 달 둘째 주(7~10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원내대표는 통상 3~4선이 맡는 것이 관례라는 점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3~4선 고지에 오른 당선자만 44명이다.

이들 가운데 일찌감치 당선자와 접촉하며 원내대표적 도전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선을 통해 친명(친이재명)계가 당을 장악한 만큼 유력 후보군에는 우선 친명계가 주로 거론된다.

4선 중에서는 김민석·서영교 의원 등이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 선출 당시 경쟁했던 김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상황실장을 맡아 당의 대승에 기여한 덕분에 호평이 나온다.

서 의원은 최고위원으로 2년간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맞췄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3선 중에서는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병기·박찬대 의원이 우선 거명된다.

김 의원은 당 수석사무부총장으로 전반적인 공천 실무 작업을 맡았고, 박 의원은 최고위원으로

서이 대표의 심방이 두렵다.

여기에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 출신 김영진 의원과 신명(신이재명)계로 불리는 김성한 의원도 물망에 오른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선명하게 싸우라는 믿음이 확인된 만큼 친명계 후보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 입법을 관철하고 여야 간 협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파 색깔이 너무 짙지 않은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재선에 성공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원내 협상에서의 지나친 강경 기조가 정쟁으로 비친다면 총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외면받을 것"이라며 "대화가 되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4선 중에서는 남인순, 박범계, 한정의 의원이 비교적 계파색이 얇은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남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장을, 박 의원은 각각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을 지낸 이력이 있다.

3선 중에는 강훈식·박주민·송기현·조승래·진성준·한병도 의원 등의 이름이 나온다.

강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으로 활약했고, 박·송·진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 여야 협상에 밝은 편이다.

조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지내며 현 정부 방송·통신 정책 비판의 일선에 섰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참사 재발 방지"... 민주 "이태원 특별법 처리"

세월호 참사 10주기 애도

정기권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는 16일 한 목소리로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국민의힘은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고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에 역량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사자 총회 모두발언에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이태

원참사특별법의 21대 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다시는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목숨이 헛되어 희생되지 않도록 정치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녹색정의당 김수영 선임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참사를 겪은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 무엇을 진상규명하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실천하고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페이스북에 "다

시는 세월호의 비극이 없게 하자"는 구호와 정치권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또 다시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며 "국가의 행정, 안전과 관련한 직무 윤리와 모든 시스템이 다른 무엇보다 생명을 가장 중시하기를 강권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돌아오지 못한 학생들의 대부분이 97년생이었다"며 "이제 스물어덟이 된 그 나이의 젊은 세대가 지난 10년간 겪었을 트라우마는 사고 그 자체보다도 안타까운 참사 앞에서 들로 갈라진 대한민국 정치권 때문이었다고 반성한다"고 적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벌써... 여야, 법사위원장 신경전

민주 "양보 못 해" 국힘 "절대 사수"... 22대 원구성 난항 예고

여야가 제22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차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인 만큼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우선 이번 총선에서 의석수 절대 과반인 175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각종 민생·개혁입법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반드시 국회 의장 자리와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여러 특검법안을 비롯한 민주당 주도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줄줄이 '울스톱'된 점도 이런 당내 목소리에 힘을 실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라디오에 나와 "극에 달했던(여야) 갈등을 어느 정도 분산하자면 당내 목소리가 커져 법사위를 (여당에) 내놔야겠다"며 "그러는데 결과물이 어땠는가. 모든 법안이 다 막혔고 협치

는 실종되고 갈등은 더 극대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총선 참패로 이번에도 원내 2당에 머무른 여당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절대 사수'를 외치고 있어 차기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현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인 만큼 법사위원장은 절대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현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러면 국회의장을 내놔야 한다. 의장 자리와 법사위원장 자리는 같이 가져갈 수가 없다"고 못 박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회기중 골프·코인 보유·공항 의전실 금지"

조국혁신당, 봉하마을서 워크숍... 부동산 구입 사전 협의 등 결의

조국혁신당은 16일 지방 국회의원들의 국회 회기 중 골프,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공항 의전실 이용, 주식 신규 투자 및 코인 보유 등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진행된 당선인 워크숍에서 조국 대표의 발제에 따라 논의의 결과 이처럼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구입 시 당과 사전협의하고, 보좌진에 대한 의정활동 이외의 부당한 요구도 금지하기로 했다.

로 했다.

조국혁신당은 내달 말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이런 내용을 정리해 '우리의 다짐' 형태로 정리해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섭단체 추진과 관련해선, 단독 또는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나 방식 등은 조 대표에게 일임하기로 공약대를 형성했다.

이와 관련해 조 대표는 "국민들은 조국혁신당이 국회 안에서 원내 제3당으로 제 역할을 다하라고

명령했다. 서두르지 않고 믿음을 받들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믿고 맡겨달라"고 말했다고 조국혁신당은 전했다.

원내대표는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를 차용, 조만간 규정을 마련해 선출하기로 했다. 콘클라베는 별도의 입후보 절차 없이 모든 투표권자가 모여 한 명을 선출할 때까지 투표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조국혁신당은 워크숍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을 초청, 의정 생활 및 언론 대응 등에 대한 조언도 들었다.

정 최고위원은 강연에서 "각 분야 전문가이지만 정치는 초보임을 명심하고 '리셋'하라"면서 "상임위가 결정되면 이전 속기록을 통해 쟁점을 공부하라"고 말했다고 당은 전했다.

/연합뉴스

펜션 급매매

전남 신안군 증도면 엘도라도 리조트 가기 전

- 대지 1,795㎡
- 건축 282㎡
- 연면적 438㎡
- 수영장 有
- 총 2개동 (객실11개, 히노끼 욕조 6개)
- 1개 소매점
- 주차 15대
- 현재 주차장과 정원부지로 사용중인 밭(전) 1,320㎡ (무상양도)

매매가 9억 8천

010-3666-6301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과정)

- 일 시: 2024. 3. 13(수) 오후 7시
- 장 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 두리보석2층)
- 수강료: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4. 3. 6(수) 오후 7시
- 장 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 0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전기비법 대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남궁당 및 수목장 수목파 종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건물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ODERN 사무실: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광역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